

성인기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 이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Adult Attachment Security: romantic attachment, and attachment and filial obligation to parents

조윤주**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Cho, Yoon Joo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romantic and parent attachment in attachment security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omantic attachment, parent attachment and filial obligation for generational transition.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ttachment anxiety in female students is higher than male students. 25.1% of the subjects is classified into a secure type and 74.9% is classified as an insecure type. Second, female subjects feel strong attachment to their mothers than male subjects. Third, romantic attachment of female students is related to attachment to their fathers. Fourth, male subjects feel more filial obligation than female subjects. Finally, their romantic and parent attach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filial obligation. Variables that explain male students' filial obligation are ones of 'giving economic aid to parent' and 'the extent of attachment to their fathers'. A variable accounting for female students' filial obligation is 'the extent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s'.

Key Words : romantic attachment, parent attachment, parent filial obligation

I. 서론

가족은 친밀성 면에서 다른 어떠한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되는 일차 집단으로 개인의 안정에 기초가 된다. 생애 초기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의 개념은 '특정한 타인과 강한 애정적 유대를 맺으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는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한 유대 또는 결속인 동시에 어머니와의 근접성과 접촉을 추구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초기 애착 관계의 안정성 또는 연속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궁금

증은 생애 초기 뿐 아니라 대상 시기의 확장을 유도하게 되었다.

Bowlby(1969)는 애착과 애착 행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 동안 나타나며 단지 표현되는 형태가 다소 수정되는 것 뿐이라 하며 애착의 안정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역할이다. 내적 실행 모델은 정서 조절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표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 모델에 따라 애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에 의하면, 영유아기에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Bretherton, 1995). 예를 들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청년 후기에도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며, 타인에 대해 불안과 적개심이 적고, 대인 관계에서 적응 정도가

*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8).

** Corresponding author: Cho, Yoon Joo
Tel: 02) 920-7620, Fax: 02) 920-2077
E-mail: bijucho@sungshin.ac.kr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Kobak & Sceery, 1988).

이처럼 애착 이론은 영아와 어머니 관계에서 유래되었지만 이 시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확대 적용되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생애 전반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이후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원형으로 역할한다는 가정하에 최근에는 성인기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대인 관계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 중에는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한 축을 구성한다(김수경, 2004; 오선영, 김영희, 2006; 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특히 성인기 중에서도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청년기의 발달 과업은 Erikson(1963)의 주장과 같이 친밀감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이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청년기의 대표적인 친밀한 관계는 이성 관계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성숙한 대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본이 된다. Hazan과 Shaver(1987)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가 이후 대인 관계 형성에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접근하여,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성인기 이성간에 형성된 친밀감을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이라 칭하였다.

새로운 애착 대상과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Hazan과 Shaver(1987)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 성향을 갖는 것으로 분류된 성인은 불안정하게 분류된 성인보다 자신의 부모와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기의 이성 관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내적 실행 모델이라는 기제를 사용하여 애착의 연속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서서히 감소될 수 있다. 성인 자녀는 자기 자신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조정하는 대처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

게 된다. 또한 성인 생활의 새로움들은 개인의 탐색 활동 체계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므로 애착을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애착 대상 외에도 안전과 애정의 욕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체 인물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기에는 애착 행동과 관심이 부모로부터 이성으로 향하게 되면서 애착 대상의 위계가 점차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애착 대상의 역전'이라고 하여 성인 초기에는 대체로 이성 친구가 주 애착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Weiss, 1982).

그렇다면 성인기의 자녀는 낭만적 이성 관계로 인해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생애 초기에 비해 약화되는 것인가?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이전의 애착 대상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착 대상자들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연로해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은 심리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며, 사회 생활에서 은퇴한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 중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은 가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회정서적인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되며, 자녀 역시 부모 부양에 대해서 가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Hareven(1995)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 초반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부모 부양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중의 하나로 애착 이론이 언급되는 것처럼, 성인 애착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부모 부양이 포함된다.

부모 부양시에 고려되는 애착의 개념은 보호적 행동으로 애착 행동은 애착 대상과의 근접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호적 행동은 애착 행동과는 다소 다르지만 애착 행동과 상호보완적이어서 애착 대상을 두려움의 존재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둔다. 즉, 성인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부모의 생존과 정서적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도움과 부양을 제공한다. 이처럼 애착에서 파생된 애착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개념은 부모 부양에 대한 동기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 부양을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애착의 감정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기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부양 행동과 정적 상관관이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현재 자녀의 부양 행동이 많으며 향후의 부양 행동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주, 2004; Cicirelli, 1983; Thompson & Walker, 1984).

이와 같이 애착이 부모 부양에 대한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사회 현상을 볼 때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개인적

인 차원에서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녀 역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노년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는 달리 출산을 저하로 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유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지리적 이동성이 늘어나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해 온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부양 행동을 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부모 부양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계속되어 온 시점에서 부모 부양에 관한 청년 세대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성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기제이며, 대인 관계의 기초로 작용하는 애착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성 친구와의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비교하여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부와 모를 구분하여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는 흔치 않는데 이들과의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애착 행동과 보호적 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성과의 애착 관계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생 동안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가족 관계의 상호 영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와 유형은 어떠하며,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2) 부와 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어떠하며,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3)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은 어떠하며,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5) 이성 친구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부모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이론

애착 이론은 장기간 지속되는 부모 자녀간 유대와 그러한 유대에서 파생되는 도움 제공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Bowlby(1969)가 처음 제안한 애착은 영아의 생존 유지와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며 생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영아의 미소짓기나 빨기, 울음, 매달리기 등은 생존을 위한 기제이며 이러한 사회적 신호 체계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와 영아는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이 발달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은 영아와 어머니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까지 적용 가능하다.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애착의 계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에 형성된 근접성 추구 모델로부터 애착과 애착 행동의 변화가 필연적이다. 이에 대해 Cicirelli(1983)는 성인이 되어 부모와 공유하는 시공의 차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애착이 지속되는 것은 성인기에 상징적인 애착 체계가 출현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상징적 애착(symbolic attachment)은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 유래되었는데, 내적 실행 모델은 자신외에도 외부 환경과 주요 인물에 대한 표상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는 개인에게 행동의 방향과 경험의 평가에 대해 체계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애착 대상에 대해 형성한 내적 실행 모델은 생애 초기 뿐 아니라 향후 대인 관계의 기초로서 역할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며, 상징적 표상을 통해 심리적인 친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과 함께 상징적 애착은 애정 대상의 특징을 내면화함으로써 성인기 동안 애착 행동이 계속될 수 없을 때 애착의 계속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애착 행동은 애착 대상과의 근접성 유지를 우선한다면, 보호적 행동은 어려움에 처한 애착 대상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둔다. 애착 이론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보호적 행동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성인 자녀는 곤경에 처한 애착 대상인 부모의 생존과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며 부양을 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개방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애착 관계와 자율성의 만족스러운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 정서적 친밀감은 성인기에도 계속된다(Bretherton, 1995). Kagan(1980)은 성인기 동안 자녀는 부모와 정기적인 의사소통과 만남을 지속하며

노부모와 성인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시 서로에게 의지하여 자녀가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에게 되돌아 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편찮게 되거나 노년기에 의존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다(Johnson & Brusk, 1977). 애착의 계속성에 대해 생애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후기에도 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안정적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Thompson & Lamb,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애착을 위주로 접근하여 이것의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성 친구 및 부모와의 애착

1) 이성 친구와의 낭만적 애착

성인 초기의 주된 발달 과업인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애착 이론에 토대를 두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과의 관계는 다양한 사회정서적 과정과 관련된 정서적 유대이며,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가 이후 관계 형성에 대체로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 이성간 친밀감을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이라 하여, 어린 시절과는 달리 애착 대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초기에 형성된 애착과 성인기의 애착은 돌봄의 방향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아와 양육자간 애착은 양육자가 영아에게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면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애착은 양자간에 대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보살핌을 주고 받는다. 또한 부모는 영아에게 안전 기지로서 역할하지만 부모가 영아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애착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낭만적 애착 관계에서는 서로가 보호와 안전 기지가 되며, 이들간에는 성적인 특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관계 모두 애착 대상과 근접성을 추구하며, 애착 대상이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들과 분리될 경우 불안해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그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는데(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대개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불안정형은 다시 무시적 회피형과 몰입형, 공포적 회피형으로 세분화된다. 안정형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타인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무시적 회피형의

개인은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며 애착 관계에 관심이 없고 독립심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몰입형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애착에 집착한다. 한편 공포적 회피형은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거부적인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거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애착 유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을 회피와 불안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하였다. 회피 차원은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정형이나 몰입형은 이에 대한 점수가 낮은 반면, 무시적 회피형과 공포적 회피형의 점수는 높다. 불안 차원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유지되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이 차원의 점수에서 안정형과 무시적 회피형은 낮지만 몰입형과 공포적 회피형은 높다. 김수경(2004)의 연구에서는 안정형(38.9%)이 가장 많았으며 공포적 회피형(33.3%)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무시적 회피형과 몰입형은 각각 13.9%를 차지하였다. 오선영과 김영희(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애착 유형은 남학생의 경우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불안형, 안정형, 회피형의 순서였다.

이성 관계는 남과 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애착의 정도에도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Gilligan(1982)은 성 역할 사회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러한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테면, 여성은 타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보다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개별성을 더 지향한다는 것이다. Chodorow(1973) 역시 남성에게는 자율성, 도구적 행동을 강조하며, 여성에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민감성, 양육적 행동 등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를 거쳐 내면화되어, 문화적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고 지적하였다(Miller & Cafasso, 1992, 재인용).

이를 반영하여 애착 유형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몰입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회피의 성향이 보다 강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그리고 무시적 회피형의 비율도 남성이 더 높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인 관계보다 개인적 성취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eney, Noller, & Harahan, 1994).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밀함에 대해 더 불편해하였다. 이 밖의 다른 연구(김동직, 한성열, 199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

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이성간 애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애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인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

애착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이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수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해서도 이들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의 적응도 원활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Kobak & Sceery, 1988). 예를 들면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에서 안정적 애착 유형의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이 낮을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응력이나 유능성의 정도도 높았다. 또한 이영미와 민하영, 이운주(2004)의 연구에서 부모와 친밀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의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신감도 많았다. 그리고 자아 탄력성이나 대인 관계의 효율감, 낙관적인 태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진로와 자신에 대한 탐색,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장지선, 2004).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은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때 자녀의 성 역시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보다 애정적 유대가 강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성인 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훨씬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함을 느꼈다(Rossi & Rossi, 1990). 어머니 역시 아들보다 딸과의 애정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아들보다 딸을 더 신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였다(Aldous, Klaus, & Klein, 1985). 조윤주(2004)의 연구에서도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의 애착이 더 강했으며, 갈등 정도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된다(Londerville & Main, 1981; Turner, 199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의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된 애착 정도와 성장 후 이것과 이성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것이 다수이다(김수경, 2004;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그러나 대부분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의존하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현재 부

모와의 애착 정도를 파악하여 낭만적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애착의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래와 같이 주로 부모 부양을 주제로 논하고 있다.

3.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

1)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

부양 의무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이나 연령, 출생 순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조부모 동거 경험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기본적인 변인으로 포함하여 이에 따른 부양 의무감의 차이 또는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애정과 의무감간의 관계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 부양 의무감 차이에 대해 Walker, Pratt, Shin과 Jones(1990)는 성인 딸의 부양은 애정과 의무감 모두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고하였으나, Kivett(1988)은 성인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게 되는 동기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은경(1999)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인 경우 부모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윤주(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부모 부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기도 하였다.

연령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Brody와 Johnsen, Fulcomer, Lang(1983)은 조모, 중년의 딸과 손녀로 구성된 삼세대 여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노부모에 대한 의무감과 역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 부모 부양, 가사일 등에 남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조모는 공적 부양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던 것에 비해 손녀 세대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삼세대 모두 노부모가 성인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의 의무감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연구들(이은경, 1999; 한은주, 최배영, 1997)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출생 순위 역시 부양 의무감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지적된다. 한은주와 최배영(1997)의 연구나 조윤주(2008)의 연구에서 장남이나 장녀인 경우, 부모 부양 수준이 높았으나,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들, 딸 구별없이 능력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통계청, 2008).

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Finley, Robert와 Banahan(1988)은 부양 의무감은 애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물리적 근접성과 역할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멀리 살수록 부양

의무감을 덜 느꼈으나 이는 부양 의무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먼 곳에 거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에게는 애정적인 요인은 중요하지 않았고 물리적인 거리만이 유의했던 반면, 여성에게는 애정적 요인이 중요하였다. 역할 갈등으로 인해 여성은 부양 의무감이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그렇지 않았으며, 단지 실질적인 부양 행동은 줄어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주로 부양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Wolfson, Handfield-Jones, Glatz, McClaran과 Keyserlingk (1993)은 부양 의무감에 대한 법적, 도덕적 기초를 분석하고자 성인 자녀에게 노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요구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부모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자녀는 부양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응답에서 아들과 딸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수입은 아들이 더 많았지만 딸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더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딸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가 미국에서는 더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임춘희(198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립 능력이 상실되거나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동거 부양을 하겠다는 장남이 많았는데 장남은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동거보조 부양 유형을 선호한 반면, 장남의 부인은 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별거보조 부양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경숙(2000)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력이 취약할 경우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을 받는 경향이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대체적으로 손자녀가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을 경우 부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2002; 조윤주, 2008), 서병숙(1986)은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과 부모 부양의 책임 의식간에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윤주(2004)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남자 대학생의 부모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부양 의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 대학생들은 친조모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조모와의 유대감이 높고 부양에 호의적이었던 반면 미국 대학생은 친조모와 접촉 빈도가 낮은 것을 선호하여 적당한 접촉 빈도가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기도 하였다(이신숙, 2006).

결론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부양은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여건 뿐 아니라 애착에 의한 동기와 의무감 등 문화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들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과 관계

애착이라는 정서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부모 부양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현재와 미래에 자녀의 부양 행동이 많다는 것이다(조윤주, 2004; Cicirelli, 1983; Thompson & Walker, 1984).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Cicirelli(1983)는 성인 자녀의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 행동을 얼마나 유발하는가를 현재와 장래의 도움 제공에 관한 경로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60세 이상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148명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자녀로 하여금 장래에 노부모에게 도움 행동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현재의 도움 행동, 애착 행동, 애착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 의무감은 애착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래의 도움 제공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여대생 자녀와 중년 어머니의 관계, 중년 어머니와 노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애착과 도움의 교환을 연구한 Thompson과 Walker(1984)는 중년의 딸과 노모 관계에서는 애착이 강할수록 도움의 양도 많았으나, 여대생 자녀와 중년 어머니 관계에서는 여대생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도움은 더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여대생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조윤주(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았고, 이 중에서도 경제적, 서비스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의 감정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기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다. 예를 들어, 부모를 시설에 수용하여 부양하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애착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Pruchno, Peters, Kleban, & Burant, 1994)에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즐겁다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 방문 역시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 악화는 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설에 수용된 부모와 성인 자녀간 관계는 계속 밀접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지 못 하면 애착이 감소한다는 Cicirelli(1991)의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처럼 부모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애착 외에도 부모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물리적 근접성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이성 친구와 교제한지 3개월 이상되며, 자신의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성인 초기의 20대 미혼 남녀 276명(남: 135명, 여: 141명)이었다. 원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을 미혼으로 제한하였으며, 서울과 충청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로,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 한 이유는 동일 연령대

의 인구 중 직종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2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만 20.8세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만 21.3세, 여학생의 경우 만 20.2세였다. 출생 순위는 장남 62.2%, 장녀 45.4%였으며, 외동아들 5.2%, 외동딸 7.8%로 이들을 합하면 장자는 남녀 각각 67.4%, 53.2%였다.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는 나머지 32.6%, 46.8%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가족 총 월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373.0만원으로 남학생은 336.7만원, 여학생은 40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N=276)

변인	분류	빈도(%)	
		남(n=135)	여(n=141)
연령	만 20세 이하	59(43.7)	95(67.4)
	만 21세 이상 - 25세 이하	69(51.1)	44(31.2)
	만 26세 이상	7 (5.2)	2 (1.4)
출생 순위	장남 또는 장녀	84(62.2)	64(45.4)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	44(32.6)	66(46.8)
	외동아들 또는 외동딸	7 (5.2)	11 (7.8)
가족 총 월소득	200만원 이하	24(17.8)	17(12.1)
	201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49(36.3)	47(33.3)
	401만원 이상 - 700만원 이하	19(14.1)	41(29.1)
	701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3 (2.2)	9 (6.4)
	1001만원 이상	3 (2.2)	3 (2.1)
	무응답	37(27.4)	24(17.0)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6 (4.4)	1 (0.7)
	어려운 편이다	39(28.9)	44(31.2)
	좋은 편이다	86(63.7)	92(65.3)
	매우 좋은 편이다	-	1 (0.7)
	무응답	4 (3.0)	3 (2.1)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	많이 제공한다	35(25.9)	23(16.3)
	조금 제공한다	22(16.3)	14 (9.9)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17(12.6)	15(10.7)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61(45.2)	89(63.1)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131(97.0)	136(96.5)
	어머니만 생존	4 (3.0)	5 (3.5)
	아버지만 생존	-	-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97(71.9)	118(83.7)
	비동거	38(28.1)	23(16.3)
조부모와 동거 경험 여부	경험있음	66(48.9)	74(52.5)
	경험없음	66(48.9)	67(47.5)
	무응답	3 (2.2)	-
아버지 연령	만 45세 이하	11 (8.4)	7 (5.1)
	만 46세 이상 - 50세 이하	49(35.9)	68(47.8)
	만 51세 이상 - 55세 이하	53(38.9)	50(35.3)
	만 56세 이상 - 60세 이하	13 (9.9)	9 (6.7)
	만 61세 이상	5 (3.9)	5 (3.6)
	무응답	4 (3.0)	2 (1.5)

<표 1> 계속

(N=276)

변인	분류	빈도(%)	
		남(n=135)	여(n=141)
어머니 연령	만 40세 이하	4 (3.0)	1 (0.7)
	만 41세 이상 - 45세 이하	24(17.7)	29(20.6)
	만 46세 이상 - 50세 이하	62(46.2)	79(56.0)
	만 51세 이상 - 55세 이하	30(22.2)	22(15.6)
	만 56세 이상 - 60세 이하	8 (5.9)	7 (4.9)
	만 61세 이상	1 (0.7)	-
	무응답	6 (4.3)	3 (2.2)
아버지 건강 상태	매우 나쁜 편이다	3 (2.2)	2 (1.4)
	나쁜 편이다	26(19.3)	13 (9.2)
	좋은 편이다	76(56.3)	94(66.7)
	매우 좋은 편이다	26(19.3)	26(18.4)
	해당 사항 없음	4 (2.9)	6 (4.3)
어머니 건강 상태	매우 나쁜 편이다	2 (1.5)	2 (1.4)
	나쁜 편이다	19(14.1)	19(13.5)
	좋은 편이다	87(64.4)	101(71.6)
	매우 좋은 편이다	27(20.0)	19(13.5)
	해당 사항 없음	-	-

가 가장 많았으나, '어려운 편이다'도 1/3 가량 차지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남녀 학생 모두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가 각각 45.2%, 63.1%로 가장 많았지만, '많이 제공한다'는 응답도 남학생 25.9%, 여학생 16.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두 명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96.7%로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함께 사는 경우가 77.9%로, 남학생 71.9%, 여학생 83.7%였다. 부모와 비동거시 방문 횟수는 남학생의 경우 '월 2회'가 41.0%였으며, '주 1회'가 17.9%로 뒤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주 2-3회'가 가장 많아서 34.8%를 차지하였으며, '주 1회'나 '월 2회', '월 1회'는 각각 17.4%로 동일하였다. 또한 부모와 비동거시 전화 횟수는 남학생의 경우 '주 2-3회'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 1회'로 33.3%였다. 여학생의 경우 '매일'이 52.2%를 차지하였으며, '주 2-3회'는 34.8%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였고 전화로도 빈번하게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동거한 경험과 동거하지 않은 경험이 거의 비슷하여, 각각 51.8%, 48.2%였다. 남학생의 48.9%와 여학생의 52.5%가 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아버지 연령은 전체 평균 51.2세(범위: 40-70세)였는데 남학생의 아버지는 만 40세에서 70세까지로 평균 51.3세였으며, 여학생의 아버지는 만 43세에서 62세까지로 평균 51.0세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전체 평균이 48.5세(범위: 39-61세)로 남학생의 어머니는 만 39세에서

61세까지로 평균 48.8세였으며, 여학생의 어머니는 만 40세에서 59세까지로 평균 48.2세였다. 부모의 건강에 대해서 '좋은 편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비올면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이 좀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 도구

1) 이성과의 애착

성인 남녀와 자신의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유형은 Brennan, Clarks, Shaver(1998)가 개발한 '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적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수경(2004)이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원래 척도와 동일하게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예비조사에서도 별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본조사에서 이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7점 척도이나 응답의 중앙 집중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불안에 관한 영역 18문항과 회피에 관한 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불안 영역과 회피 영역 각각 18점에서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애착 성향과 회피적인 애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애착 점수를 본 연구 대상의 전체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개인의 회피 차원과 불안 차원의 평균 점수가 본 연구 대상의 회피, 불안 차원의 평균 점수보다 낮으면 애착 유형을 안정형으로 분류한다. 이 때 집단의 평균 점수는 중범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는 불안정형으로 나뉘는데 불안정형은 무시적 회피형, 몰입형, 공포적 회피형으로 세분화된다. 무시적 회피형은 한 개인의 회피, 불안 차원의 평균 점수가 연구 대상의 회피 차원의 평균보다 높고 불안 차원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이고, 몰입형은 개인의 회피, 불안 차원의 평균 점수가 연구 대상의 회피 차원 평균보다 낮고 불안 차원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이다. 개인의 회피, 불안의 평균 점수가 본 연구 대상의 회피와 불안 차원의 평균보다 모두 높은 경우는 공포적 회피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전체적으로 회피형은 .899(남: .922, 여: .851), 불안형은 .891(남: .902, 여: .876)이었다.

2) 부모와의 애착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icirelli(1995)의 'Adult Attachment Scale(AAS)' 8문항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도구의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 번역본을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영어권 한국인이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 다음 번역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95.7%의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예비조사시 연구 대상이 응답하는데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원래 7점 척도였으나 응답상의 변별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와 모에 따라 지각하는 애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와 모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해서는 .883(남: .915, 여: .832)이었으며,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해서는 .731(남: .715, 여: .742)이었다.

3) 부모 부양 의무감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은 Seelbach와 Sauer(1977)의 'Filial Obligation Scale'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문화권에서 적용하는데 별 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자식은 부모님을 찾아 뵙고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서 자주 연락해야 한다',

'자식은 언제든지 기꺼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결혼한 자식은 부모님 가까이 살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식이 돌봐 드려야 한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양로원에 보내기보다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6점에서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77(남: .814, 여: .734)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응답자의 문항 이해와 응답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유의표집한 대학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에 대해 별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에서 25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2008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가 끝난 후 대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연구 보조자에게 부탁한 경우는 일주일 뒤에 회수하였다. 배포한 총 300부의 질문지 중 285부가 수거되었으며, 응답 내용이 부실한 9부를 제외한 27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우선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성 친구와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자 X^2 검증을 실시하였고, 성에 따른 이성 친구와의 애착 차이,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 차이, 부모 부양 의무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성과의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모 부양 의무감과 관계 파악은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모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및 유형과 성에 따른 차이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유형, 그리고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t* 검증을 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로서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은 각 41.9점, 38.9점이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18점-72점)를 고려하면 평균 점수 45점에 비해 낮은 점수였다. 남녀간 차이를 보면 회피 애착의 점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t*=-.897), 불안 애착의 경우 남학생(*M*=37.37)이 여학생(*M*=40.66)보다 낮아 여학생이 불안정한 애착을 더 많이 보였다(*t*=-2.597*). 또한 남학생은 불안 애착보다 회피 애착이 더 많았으며, 여학생도 동일한 양상이었으나, 남학생의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간 차이가 여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점수를 기준으로 안정형과 불안정형을 구분한 결과 69명(25.1%)이 안정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남녀별로는 각각 35명(25.9%), 34명(24.1%)이었다(<표 3>). 반면 불안정형은 207명(74.9%)이었는데, 무시적 회피형(21.0%), 몰입형(29.3%), 공포적 회피형(24.6%)으로 세분화되었고, 이 중 몰입형이 가장 많았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몰입형이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유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남자는 안정형과 공포적 회피형, 무시적 회피형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안정형, 무

시적 회피형과 공포적 회피형의 순이었다.

2.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 정도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부와 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과 자녀의 성에 따른 애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성과 부모의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8점-32점)를 고려하면 남녀 모두 중간 점수(20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애착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한 남녀 차이는 남학생이 다소 높았던 반면,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t*=-2.947, *p*<.01). 즉, 딸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들과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정도는 25.6점,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정도는 25.8점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한 정도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정도(*M*=24.70)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정도(*M*=27.25)에 비해 낮아 어머니에 대한 딸의 애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와 성에 따른 차이 (N=276)

변인	남 (n=135) M(SD)	여 (n=141) M(SD)	전체 (N=276) M(SD)	t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회피 애착	41.94(12.95)	41.89(8.42)	41.92(10.86)	-.897
불안 애착	37.37(10.16)	40.36(8.91)	38.91 (9.64)	-2.597*

* *p*<.05

<표 3>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유형 (N=276)

변인	남 (n=135) 빈도(%)	여 (n=141) 빈도(%)	전체 (N=276) 빈도(%)	X ²
안정형	35(25.9)	34(24.1)	69(25.1)	
불안정형				
무시적 회피형	25(18.5)	33(23.4)	58(21.0)	1.059
몰입형	40(29.7)	41(29.1)	81(29.3)	df=3
공포적 회피형	35(25.9)	33(23.4)	68(24.6)	

<표 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 정도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 (N=276)

변인	남	여	전체	t
	(n=132/133) M(SD)	(n=135/141) M(SD)	(N=267/276) M(SD)	
부모와의 애착 정도				
아버지와의 관계	25.62(6.18)	24.70(4.40)	25.17(5.38)	1.428
어머니와의 관계	25.81(4.63)	27.25(3.33)	26.55(4.07)	-2.947**

** p<.01

* 사례수는 부와 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와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와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의 관계 중 여학생의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가 불안 애착, 회피 애착과의 관계에서 각각 $r=-.210(p<.05)$, $r=-.206(p<.05)$ 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이성 친구와의 불안 애착이 낮았으며, 또한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회피 애착도 낮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 정도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

네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 정도와 이것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부모 부양 의무감은 평균 19.4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6-24점)의 평균 점수 15점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이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다.

5.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

마지막 연구 문제인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성 친구와의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의 관계는 남학생은 $r=-.055$, 여학생은 $r=-.109(p<.10)$ 로 부적 상관을 보여 이성 친구와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이성과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는 부모에 대해 남학생은 각각 $r=.437(p<.01)$, $r=.448(p<.01)$ 로 아

<표 5>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의 관계

변인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남(N=130/133)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여(N=135/140)	
	불안	회피	불안	회피
	r	r	r	r
부모와의 애착 정도				
아버지와의 관계	.051	.029	-.210*	-.206*
어머니와의 관계	-.080	-.122	-.027	-.032

* p<.05

<표 6> 부모 부양 의무감에 대한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 (N=276)

변인	남	여	전체	t
	(n=135) M(SD)	(n=141) M(SD)	(N=276) M(SD)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	19.68(2.96)	19.11(2.70)	19.40(2.84)	1.753

<표 7> 이성 친구 및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과의 관계

변인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	
	남(N=132/135)	여(N=135/141)
	r	r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055	-.109 ⁺
부모와의 애착 정도		
아버지와의 관계	.437 ^{**}	.280 ^{**}
어머니와의 관계	.448 ^{**}	.288 ^{**}

+ p<.10 ** p<.01

버지와 애착이 강할수록, 또한 어머니와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았다. 여학생도 동일한 경향으로 아버지에 대한 관계(r=.280**), 어머니에 대한 관계(r=.288**) 모두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애착이 강할수록, 그리고 어머니와 애착이 강할수록, 이들에 대한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기본 변인으로 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이성과의 애착과 부, 모와의 애착을 함께 투입하였다. 먼저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는데, 성 변인($\beta=-.126^*$)이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추출되어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는데 남학생 집단은 $r=-.158^*$ 에서부터 $r=.553^{***}$ 으로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버지 연령과 어머니 연령의 상관 계수가 높

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어 분석시 투입에서 제외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와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r=.814^{***}$ 로 계수가 높기는 했으나 측정 내용이 독립적이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이어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학생 집단은 $r=-.263^{**}$ 에서부터 $r=.616^{***}$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부록 1>).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2.057, 여학생의 경우 1.809로 2에 근접하였고, Eigen 값은 남녀 집단 각각 9.177, 9.509로 15이하여서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남학생 집단의 분석 결과 1단계로 투입한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은 6%였다($F=2.062^*$). 이 중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beta=-.177^*$)와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beta=.177^*$)가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할수록, 조부모와 같이 산 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았다. 2단계에서는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부모의 건강 상태를 투입하여 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F=1.643$), 부모와 관련된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beta=-.177^*$)와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beta=.196^*$)는 여전히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나, 부모에게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줄수록, 조부모와 같이 산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았다. 3단계에서는 1단계 자녀 관련 변인, 2단계 부모 관련 변인 외에 자녀의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를 투입하였는데,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beta=-.189^*$)와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beta=.199^*$)는 부양 의무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유의하였지만, 설명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표 8> 남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131)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β	β	β
자녀 연령	.096	.097	.106	.110
출생 순위	-.080	-.077	-.088	-.110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	-.177 [*]	-.177 [*]	-.189 [*]	-.186 [*]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	.177 [*]	.196 [*]	.199 [*]	.031
아버지 건강 상태		.132	.130	.081
어머니 건강 상태		-.096	-.093	-.086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056	.090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				.338 [*]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				.172
ΔR^2	.061 [*]	.012 [*]	.003 ^{**}	.208 ^{***}
R^2	.061	.073	.076	.284
F	2.062 [*]	1.643	1.454	5.347 ^{***}

* p<.05 *** p<.001

※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는 안정적 애착은 0, 불안정 애착은 1로 더미 변환하여 투입하였음.

<표 9>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N=134)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β	β	β
자녀 연령	-.002	-.020	-.010	-.041
출생 순위	.055	.043	.048	.026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	.083	.077	.084	.104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	-.134	-.109	-.145	-.064
아버지 건강 상태		-.099	-.102	-.070
어머니 건강 상태		-.078	-.064	-.136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			-.147*	-.072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				.133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				.215*
ΔR^2	.027	.022	.020	.086**
R^2	.027	.049	.069	.155
F	.909	1.092	1.338	2.536**

+ $p < .10$ * $p < .05$ ** $p < .01$

※ 이성 친구와의 애착 정도는 안정적 애착은 0, 불안정 애착은 1로 더미 변환하여 투입하였음

($F=1.454$). 끝으로 자녀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정도를 투입하였더니 21%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부모 부양 의무감의 총 28%를 설명하였다($F=5.347^{***}$). 최종적으로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제공 정도($\beta=-.186^*$),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beta=.338^*$)가 부모 부양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할수록,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남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았다(<표 8>).

여학생 집단의 변인 투입 순서는 남학생 집단과 동일한데, 1단계로 투입한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은 3%였으나($F=.909$), 유의한 설명 변인은 없었다. 2단계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 투입 결과 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F=1.092$), 총 5%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 3단계에서 이성과의 애착 정도를 투입한 결과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나($\beta=-.147^+$), 이성과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와 모의 애착 정도를 투입하여 9%의 설명 변량이 증가하였다. 이 중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beta=.215^*$)가 영향력있는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F=2.536^{**}$),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 16%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와 애착이 강할수록, 여학생의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표 9>).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기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이성 친구와의 애착과 성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얼

마나 안정적이며, 이성과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가 부모 부양 의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남녀의 차이를 보면 회피 점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매우 적은 차이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김수경(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회피 점수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미약했던 것은 연구 대상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을 이성 친구와 사귀지 3개월 이상되는 경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성을 보이기 쉬우며 오히려 상대가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집착하거나 불안해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안 점수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Chodorow(1973)나 Gilligan(1982)의 주장과 같이 성 역할 사회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고 강한 애착감을 갖기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착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애착 유형은 안정형보다 불안정형이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형 중에서도 몰입형이 가장 많았다. Brennan과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는 안정형은 30.4%, 불안정형은 69.6%(무시적 회피형 20.8%, 몰입형 24.4%, 공포적 회피형 24.4%)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몰입형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선행 연구(Brennan et al., 1998)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으나 본 연구는 현재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전제로 조사하였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관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른 관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안정형과 공포적 회피형, 무시적 회피형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안정형, 무시적 회피형과 공포적 회피형이 많았다. 남녀간 애착 유형별 차이에 있어 안정형이나 몰입형, 공포적 회피형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무시적 회피형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컸고 남학생의 비율이 적었다. 이는 애착 유형간 성차는 무시적 회피형 비율에서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동직과 한성열(1997)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무시적 회피형의 개인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애착 관계에 관심이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독립심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부와 모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평균 점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남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이성간의 애착 관계에서도 관계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인이 적었던 것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친밀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들보다 딸이 부모와 애착이 더 강하며 이 중에서도 어머니와 더 친밀한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 연구(조운주, 2004; Rossi & Rossi, 1990)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모녀 관계가 다른 관계들보다 애정적 유대가 강함을 일관되게 보여 주었다. 부와 모를 구분하여 자녀와 애착 관계를 살펴본 이전의 연구들이 흔치 않은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들이 지각하는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점수 차이 중 어머니 애착 점수가 약간 높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의 애착은 별 다른 차이가 없거나 혹은 아들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각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의 안정성에 관해 이성과의 회피 및 불안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은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이성 관계에서의 불안이나 회피 정도가 낮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애착이 강할수록, 남자 친구와의 관계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부녀 관계, 모녀 관계 중 특히하게도 부녀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였던 것은 성 역할 사회화에서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 형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와 남자 친구

는 남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대상이므로 아버지와 경험에 긍정적으로 학습이 되었다면 남자 친구에 대한 관계도 긍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관계들보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점수는 아니었다. 통념상 남성이 부모에 대해 부양 의무감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성의 부모 부양 의무감이 높은 경우도 보고된다(조운주, 2004).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의무감을 조사한 것으로 원가족에 대한 의무감인지 혼인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의무감인지에 따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남녀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기대가 최근에는 약화되어 아들, 딸 상관 없이 부모 부양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고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 부양 의무감과 관계는 남녀 모두 동일한 경향으로 이성 친구,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 역시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부양 행동이 많다는 선행 연구(조운주, 2004; Cicirelli, 1983; Thompson & Walker, 198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애착 이론 중 성인기의 상징적 애착 체계는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 보호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애착 대상과의 물리적인 근접성 추구를 초월하여 직접적인 애착 행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 제공과 아버지와 애착 정도가,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이들의 부모 부양 의무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는 Wolfson과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처럼 부모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자녀는 부양을 당연시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단, 미국의 경우 아들보다 딸의 부양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들의 부양 책임이 딸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와 모의 애착 정도가 부모 부양 의무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착 유형 중 몰입형 다음으로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형의 경우 이성 관계 형성의 초기 단계이므로 서로에게 몰입의 요구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안정형의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은 연구 대상의 애착 성향이 안정적이어서 이성 관계와의 애착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 역시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 이성과의 애착 정도가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 부양 의무감을 설명하여 이성과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 부양 의무감도 높았으나 최종 설명 변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했던 결과는 성 역할 사회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내적 실행 모델이 부모 부양 의무감에도 작용하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며 대인 관계의 적응 정도가 높은 개인은 부모와 관계가 원만할 때 부양의 상황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약자에 대한 보호적 태도는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Bowlby, 1969), 자녀가 유년기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부모가 연로하고 병약해지면 성인 자녀가 이들을 부양함으로써 종족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애착이,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모 부양 의무감의 설명 변인이었다. 남학생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애착을 중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Bowlby(1969)의 주장에서처럼 종족 계승을 위해서는 부계 중심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아버지와의 애착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하여 아버지보다는 자신과 보다 친밀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애착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이성과의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 또한 이성 및 부모와의 애착이 부모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부녀 관계에서 이성과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와의 애착 역시 안정적이었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무감 또한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성인기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이성과의 애착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의 애착 관계와 노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부와 모를 분리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애착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의 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모의 의견 또한 함께 조사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낭만적 애착, 부모와의 애착, 부모 부양 의무감

참 고 문 헌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 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수경 (2004).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정도. *한국사회학*, 34, 가을호, 621-647.
- 서병숙 (1986) 부모 노후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101-120.
- 오선영, 김영희 (2006). 성인기 애착 유형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25- 57.
- 이신숙 (2006).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손자녀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53-68.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와의 갈등 및 성인 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 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은경 (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 65.
- 임춘희 (1988).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 유형: 세대 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장지선 (2004).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2002). 청년 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5(1), 101-121.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조윤주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조윤주 (2008).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한은주, 최배영 (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 통계청 (2008). 2008년 사회조사.
- Aldous, J, Klaus, E, & Klein, DM (1985). The understanding heart: Aging parents and their favorite child. *Child Development*, 56, 303-316.
- Armsden, GC & Greenberg, MT (1987). The inventory of

-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tholomew, K & Horowitz, L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In D. R. Shaffer (Ed.),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4-034). Wadsworth.
- Brennan, KA, Clarks, CL, & Shaver, PR (1998).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95). A communication perspective on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Vol. 60, pp. 310-329).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dy, EM, Johnsen, PT, Fulcomer, MC, & Lang, AM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5, 597-607.
- Cicirelli, V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s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2.
- Cicirelli, VG (1995). A measure of caregiving daughters' attachment to elderly mo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89-94.
- Collins, N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Erikson, E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eney, JA & Noller, P (1990). A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eeney, JA, Noller, P, & Ha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Development in the conceptualization of security and insecurity.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Finley, NJ, Robert, MD, & Banahan, BF (1988). Motivators and inhibitors of attitudes of filial obligation toward aging parents. *The Gerontologist*, 28(1), 73-7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even, TK (1995).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family and aging.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 13-31).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Hazan, C & Shaver, P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Johnson, ES & Brusk, B (1977).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17, 90-96.
- Kagan, J (1980). Perspectives on continuity.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pp. 25-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vett, VR (1988). Older rural fathers and sons: Patterns of association and helping. *Family Relations*, 37, 62-67.
- Kobak, R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 in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iller, B & Cafasso, L (1992).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r artifact? *The Gerontologist*, 32, 498-507.
- Pruchno, RA, Peters, ND, Kleban, MH, & Burant, CJ (1994). Attachment among adult children and their institutionalized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09-218.
- Rossi, AS & Rossi, P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eelbach, WC & Sauer, WJ (1977). Filial responsibility

-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The Gerontologist*, 17, 492-499.
- Thompson, L & Walker, AJ (1984).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13-322.
- Thompson, RA & Lamb, ME (1986). Infant-mother attach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In P. Butler, D. Featherman, & R. Lerne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7, pp. 1-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urner, P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Walker, AJ, Prett, CC, Shin, H, & Jones, LJ (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 51-56.
- Weiss, R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171-184). New York: Basic Books.
- Wolfson, C, Handfield-Jones, R, Glaa, KC, McClaran, J, & Keyserlingk, E (1993). Adul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care for dependent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3(3), 315-323.

(2008. 10. 10 접수; 2009. 2. 6 채택)

<부록 1> 독립 변인들간 상호 상관 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 자녀 연령	1.000	-.067	.100	-.047	.098	.133	-.158*	.015	-.056
(2) 출생 순위	.078	1.000	-.040	.092	-.008	.035+	.192*	.061	.057
(3) 경제적인 도움 제공	-.172*	.014	1.000	.146*	-.044	-.028	.192*	.008	.050
(4) 조부모 동거 경험 여부	.007	.098	-.044	1.000	-.134+	.020	-.006	.331***	.301***
(5) 아버지 건강 상태	-.072	-.069	-.002	.110	1.000	.553***	-.014	.037	.058
(6) 어머니 건강 상태	-.144*	-.059	-.048	.163*	.437	1.000	-.061	.029	.096
(7) 이성과의 애착 정도	.049	.015	.041	-.228**	-.013	.035	1.000	-.097	.008
(8) 아버지와와의 애착 정도	-.038	-.034	-.045	-.192*	-.008	.137+	-.263**	1.000	.814***
(9)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	.135+	.135	-.106	-.122+	-.054	.090	-.082	.616***	1.00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은 남학생 집단의 독립 변인들간 상호 상관 계수이며, 좌측 하단은 여학생 집단의 독립 변인들간 상호 상관 계수임.